

# 대부업체 감독 체계 추진

### 금감원, DB 구축 등 500여곳 이관 준비 나서

금융감독원이 7월 개정 대부업체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대부업체까지 이관 받게 되면서 금감원이 관리하게 될 대부업체는 500여곳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대부업체감독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은 29일까지로, 금감원은 기술과 가격 평가를 마친 4월6일 이후에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 대부업체법에 따라 오는 7

월25일부터 금감원이 감독하게 될 대부업체가 대폭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대부업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곳으로 정하기도 했다.

대부업체 감독시스템 구축 작업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자체로부터 데이터 자체를 넘겨 받는 것은 이관에 임박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DB를 통합하고 감독 대상을 데이터화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기초부터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이 이원화해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금감원이 직접 감독해야 하는 대부업체는 500여곳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던 것 대비 일원화된 대응 체계는 갖출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부업체 일몰로 과다 금리 논란이 있었던 지난 1월초와 같은 경우 감독 당국 차원에서 일원화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초 대부업체 감독은 저축은행 감독국이, 검사는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이 맡도록 조직 개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독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작은 업체들이 많은 대부업체의 특성상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 권한 자체도 지자체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 대부업체가 애매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곳들은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크게 늘어나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안진수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구두 브랜드인 탠디 종합전 행사를 진행한다.

## 전주롯데백 구두 브랜드 탠디 종합전

### 내일부터~30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규)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층 접 행사장에서 구두 브랜드인 탠디 종합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토털매장 명성에 맞게 구두, 지갑, 벨트 등의 피혁류 전 상품을 품목에 따라 60%에서 최대 70% 할인으로 실속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아월 및 기획 상품, 스킨케어상품으로 구성된 8,000쪽, 7억 가량의 상품물량으로 선택의 폭을 한층 높였다.

'탠디 종합전'은 대표상품인 구두, 수입화, 남성스니커즈를 8만

9,000원부터 13만 8,000원 균일가에 판매하고 특히 한정상품으로는 여성화 300쪽을 6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남성벨트/지갑 25만9,000원, 여성지갑 6만9,000원부터 7만9,000원까지 균일가 매장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증정행사로는 탠디 20만원 이상 구매 시 일 20개 한정대 70% 할인으로 실속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여성패션 김태훈 파트리더는 "이번 활동이 많아 지는 봄을 맞아 풀코디 착장 마지막 코스인 다양한 구두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기획한 대규모 행사인 만큼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전북 2월 수출, 전년동월비 14.8% 감소

### 자동차·부품 수출 저조 원인

전북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수출 10대 품목(MTI 3단위 기준) 중 '농약 및 의약품(전년 동월 대비 77.2%)', '종이제품(동 33.3%)', '합성수지(동 31.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동 28.2%)' 등은 20~70%대의 증가했지만 지난 1월 부

진한 모습을 보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되살아나지 못하면서 2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했다.

수입 역시 원자재 및 수출용 수입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2월 전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5.5% 감소한 2억 9,603만 달러를 기록, 3억 달러 선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2월 전북지역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689만 달러 축소

된 2억 2,885만 달러에 머물렀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연초부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력산업 외에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 촉보기업에 초점을 맞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스타킹 벗고 덧신 신을래'... 유통업계는 이미 여름

봄과 가을이 점차 짧아지는 등 계절차가 극명해지면서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여름 제품을 일찍이 선보이거나, 계절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시즌리스' 제품을 강화하는 추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3.6도였던 3월 평균 최저 기온은 2013년 5.1도, 지난해는 6.3도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역시 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5월에는 고온 현상도 예상된다.

이처럼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이미 3월부터 마 소재의 '리넨'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 소재는 통기성이 좋아 대부분 4~5월께 여름 의류로 내놓는다. 미소도 이미 샌들, 여름용 블라우스를 판매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앰리밋은 지난해만 해도 봄·여름 시즌 중 30% 정도를 차지했던 바림바이 재킷, 맨투맨 티셔츠 등 봄 제품을 올해 20~25% 정도로 줄였다. 반면 여름 시즌을 위한 초경량 바림바이는 매장에 이미 입고시켰다. 레시그드 등 워터스포츠용 상품도 지난해보다 1개월여 이른 4월 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서진형 앰리밋 기획본부장은 "간절

기 제품의 인기와 짧아진 봄 때문에 몇 년 전과 대비해 봄 상품 구성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며 "1년 내 내 입을 수 있는 시즌리스 제품 구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다리 패션도 바뀌고 있다. 봄, 가을 등 간절기에 신는 스타킹 소비가 줄어들고, 계절에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덧신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

속옷전문업체 남영비비안에서 레그웨어 전체 매출을 살펴본 결과, 스타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39%)에 비해 지난해(33%)로 7% 감소했다. 대신 덧신·삭스양말)는 같은 기간 비중이 13%에서 20%로 증가했다. /이성주 기자

## 동진농어촌공, 수자원관리 도내 1위

### 농업인 만족도 분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2015년도 수자원관리 종합평가에서 지역본부별 평가결과 전북관내에서 1위를 달성하여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 시 평가 우수부서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관리종합평가는 수자원관리(안정적 용수공급 및 효율화), 수질관리(수질개선 노력), 시설물관리(일반시설물 및 기전시설물관리),

유지관리개선(경영개선 및 정보관리, 농업인 만족도 조사) 등 4개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진지사에서는 농업인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진지사는 지난해 용·배수로 준설에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물 90km를 정비하고 특히 유지관리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농업기반 시설 무단사용 금지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물 관리 업무를 추진해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자생갈대 채취 허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태)은 새만금 노출지의 효율적 활용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이 자생갈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종태 새만금사업단장은 "사료가치가 높은 봄철에 갈대채취를 조

시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급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은 지난해 갈대채취를 통해 조사료 10,988톤을 수확하고 1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그로인해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급안정은 물론 방화선 구축, 갈대고사체 축적방지를 통한 환경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공공주택건설 안정적 추진" 김경기 LH 전북본부장 밝혀

김경기 LH 전북지역본부장은 "혁신도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국가 정책사업과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전 주민생자구는 공동주택 분양(전용 50㎡, 711호)을 5월중에 시행하겠다"면서 "지난 2007년 사업시작 후 정해진 완공분 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 단지활성화 및 완공 공공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6년 9월 착공 계획이다" 밝혔다.

또한 "군산신역세가지구는 총 107만9,000㎡ 중 2단계 구간(739천㎡)에 대해 민간 자본 참여 유도 등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전북경진원, 디자인 개발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사업 신청은 24일부터 4월 일까지이며 모두 30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로고, 제품 인쇄물 포장물 등 4개 분야 중 한개 분야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비는 70~80% 내 60~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상하반기 별도로 모집하던 방식에서 연간 1회로 통합 운영, 선정된 기업에서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물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디자인 개발 지원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kr) 또는 (063-711-2031)를 통해 문의하면된다. /신광영 기자

## 전북농어촌공, 지열냉난방 신재생에너지사업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유가변동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지방담 20%로 진행되고 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기름보일러 대비 70%의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52개소 566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9개소 73억원의 지열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광영 기자



##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